라벨전문기업 (주)흥지원

소량다품종넘어 주문 · 개인화로 승부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에 위치한 (주)흥지원(대표 서원창)은 1968년 전문 송수신 장비인 텔렉스의 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대창상사로 문을 열었다. 이후 전산용지와 팩시밀리 용지의 가공 판매업 등을 거치며 사무용 정보통신 기기의 변천사와 발맞춰 꾸준히 발전하던 중 2000년 1월 (주)흥지원으로 개명하고 전문 라벨 인쇄업체의 위상을 쌓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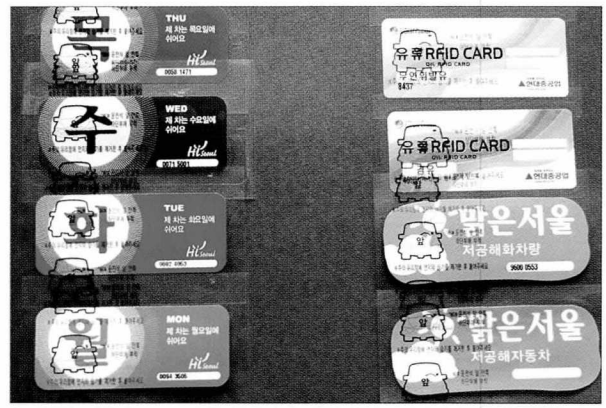
주거래처는 대한항공 · 하이닉스

흥지원에서 생산되는 대다수의 제품은 바코드 프린터나 레이저 프린터 혹은 오토 라벨러 등을 거쳐 특성이 발휘된다. 따라서 이 장비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활용은 흥지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특히 대창상사 설립 이래로 쌓아온 종이인쇄물과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폭넓은 경험은 흥지원이 라벨 인쇄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됐다. 현재 흥지원은 이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흥지원의 주요 거래처는 대한항공과 하이닉스다. 항공 승객용 수하물 태그를 비롯한 대한항공의 라벨작업은 흥지원 전체 작업량의 65% 정도를 차지한다. 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작공정 관리용 물류 라벨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 현대엘리베이터 등도 주요 거래처다.

서울시 RFID 승용차요일제 태그 사업 참여

소모성 지제품 종합 공급업체에서 라벨 인쇄업체로의 성공적인 변신을 이룩한 흥지원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존재이유의 하나다. 이러한 굽힐줄 모르는 도전정신은 요즘 인쇄업계의 신성장동력으로 일컬어지는 RFID 사업까지 이어졌다.



흥지원은 서울시 RFID 승용차 요일제 사업 참여 3주만에 25만매를 제작하기도 했다.

2005년 12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승용차요일제 RFID 적용사업에 현대정보기술의 협력업체로 참여한 것이다. 그 당시 흥지원은 RFID 태그 제작과 관련한 기본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만에 승용차요일제 적용 RFID 태그 25만장을 성공적으로 제작, 공급했다. 그 당시 흥지원 모든 작업장의 전등은 한 번

국내에 첫 도입된 디지털인쇄기 HP인디고 ws4500

HP인디고 ws4500을 통해 표현되는 각종 컬러 응용제품

도 꺼진 적이 없었고 근처 몇몇 식당도 홍지원 가족들의 하루 5끼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관계로 덩달아 하얀 밤을 새웠다. 작업을 단기간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십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도 했는데, 비교적 고가인 시간당 9천원이었기에 어떤 학생은 잠도 자지 않고 36시간 연속으로 작업을 하기도 했다. 그 기간 동안 서 사장의 수면 시간도 70시간에 불과했다. 서 사장을 비롯해 직원, 아르바이트생까지 총동원된 처절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모두가 힘을 합쳐 3주 만에 약속한 25만장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3달이 소요되는 작업량이었다. 이를 계기로 홍지원은 서울시 최초의 승용차요일제 RFID 태그 본사업에도 참여, 지금까지 총 75만매를 제작, 공급했다.

업체별 개성 강화하는 라벨 인쇄 수요 성장

최근 라벨 업계는 신규설비의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 라벨인쇄업체가 노후 설비를 교체하거나 소량다품종 단납기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를 확장하려고 기계를 도입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업을 영위하던 업체가 라벨 인쇄업에 진출하기 위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만큼 라벨 인쇄업계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원색로터리 라벨인쇄기가 1987년경에 도입된 이래 국내 보유대수가 100대에 이르기까지 15년이 소요됐는데 비해, 지난해와 올해 도입되는 라벨 인쇄기만 100대에 달한다는 사실이 반증하고 있다. 라벨 인쇄업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4~6%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량으로 소요되는 라벨 인쇄물에 대한 업체 간의 가격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주요 공산품 제조업체의 마케팅 정책은 소량다품종 단납기 주문과 고품질 인쇄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편리해진 정보통신 서비스의 향상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프로슈머의 활동으로 주문화 및 개인화에 대한 수요가 점차 확대되며, 브랜드에 대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인쇄물의 수요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HP인디고 ws4500 국내 첫 도입

변화하는 라벨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홍지원은 지난 5월 26일 디지털인쇄기 HP인디고 ws4500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ws4500은 내로우 웹 솔루션으로 워크플로를 완전 자동화하는 한편, 플렉소인쇄를 능가할 정도로 향상된 컬러품질을 구현하는 디지털 컬러 라벨 인쇄기다. 24시간 다양한 작업이 가능하며 1달에 500종 이상의 다른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쉽게 작업을 전환하고 신속한 잉크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량 인쇄물의 경우에도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선택사양인 5번, 6번, 7번 컬러 스테이션용 스폿 컬러 잉크를 다운타임 없이 교환할 수 있으며 작업 시 오퍼레이터의 개입을 크게 줄였다. 약 2000m의 인쇄물을 비용 효율적으로 출력할 수 있으며 라벨, 쉬링크 슬리브, 연포장을 포함한 광범위한 미디어와 호환되는 장

점이 있다.

디지털 인쇄 사업모델 발굴, 표준 수립

홍지원은 ws4500을 설치한 후 장비에 대한 교육과 시험운전에 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지금도 몇몇 작업들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디지털인쇄기의 응용과 활용범위에 대해 학습하고 있다. 지금 당장 장비를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기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홍지원은 이러한 학습의 시간을 통해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스스로 찾아내고 있다. 중요성이 지속 부각되고 있는 위변조복제 방지 사업과 관련한 시리얼 번호 인쇄 등이 그 예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응용은 가변데이터 활용을 통해 그 효과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습의 결과로 태동하게 될 홍지원의 향후 비즈니스 영역은 현재의 부가가치 기준을 미래의 부가가치 범위로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디지털 라벨 인쇄 시장이 형성됐느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보다 우선한다. 물론 향후에는 디지털 라벨 인쇄 시장을 개척하며 고객을 발굴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될 것이다. 새로운 사업 모델의 발굴은 소량다품종화를 넘어서 주문화, 맞춤화로 집약되는 디지털인쇄의 특성을 100%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 속에서 홍지원은 국내 실정, 구체적으로는 홍지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디지털 표준을 세우는 작업을 함께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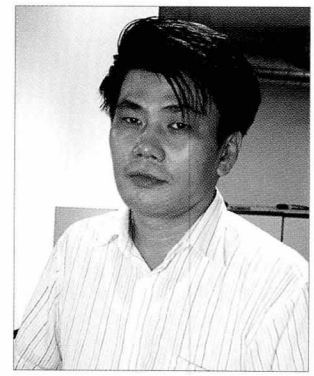
다이커팅을 비롯한 후가공 응용이 과제

명실상부하게 디지털 라벨 인쇄 전문 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홍지원은 다이커팅을 비롯한 인쇄물 후가공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ws4500에 맞는 후가공 설비가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은 관계로 쉽게 도입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쇄는 디지털 방식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후가공은 목형작업을 비롯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레이저 커팅 등이 중요한 솔루션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디지털 라벨 인쇄 전문업체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차한잔〉 서원창 사장

"학습 통해 디지털 응용 확실히 습득"



ws4500 도입 계기는? ★★★ 지금 라벨 업계에서는 설비도입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기존 라벨업체들이 노후 설비를 교체하거나 소량다품종 단납기 등의 새로운 인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업종에 있던 업체가 라벨 산업에 진출하는 사례도 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아직도 디지털인쇄기를 선택한 곳은 없다. 타업체들이 도전하지 못하는 새로운 영역에서 시도하는 것이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ws4500 도입을 결정했다.

ws4500을 통해 할 수 있는 사업은? ★★★ 디지털인쇄 시장은 아직 열려있지 않은 상상의 세계라 할 수 있다. 그만큼 무한의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지금 디지털인쇄의 응용 및 활용에 대한 학습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문화, 개인화를 중심으로 인쇄보안 솔루션 등에 적용하면 무한한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라벨 인쇄사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확대, 보다 폭넓은 작업 영역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ws4500 도입으로 바라는 점은? ★★★ 소량다품종이라는 표현이 부각된 것이 벌써 10년이 넘었고 단납기에 부응해야 한다는 말도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소량다품종, 단납기를 넘어 주문화, 개인화에 집중해야 될 때다. 1장의 인쇄물량도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극소량의 수요를 해결함으로써 오히려 더 높은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이 디지털인쇄기 도입을 통해 바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생산 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에 적용되는 전통방식 인쇄의 폭넓은 가공기술도 전방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로써 인쇄업도 3D 업종이 아닌 선진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